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ROPIC OF KANSAS, SERIES 1: RULE OF CAPTURE

가제 : 캔자스의 열대 시리즈 1권, 포획의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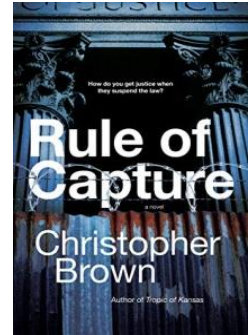
저자 : Christopher Brown

출판사: Harper Voyager

발행일: 2019년 8월 13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크리스토퍼 브라운, 필립 K.딕, 카프카를 절묘하게 섞어놓은 것 같다."-수상작 『Hap and

Leonard series』의 작가 조 R. 랜즈데일

*"브라운이 그려낸 미국 보다 더 미국 같은 미국의 모습" - 『Mirrorshades』, 『Islands in the Net』의 저자 브루스 스틸링

중국과의 치열한 전쟁 끝에 미국은 처참히 패하고 말았다. 게다가 기후 변화는 패전의 땅을 더 황폐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또 다시 피의 내전을 앞두고 있었다. 패배는 제국의 종말을 의미했다. 한 때 미국은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다. 좋은 시절을 겪어 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더 혹독했다.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남은 것은 턱없이 모자란 이 땅의 궁핍은 분란과 갈등만을 가져왔다. 전쟁 전부터 이미 가진 게 많았던 사람들은 사방에 통제문들을 설치하고 자신들만의 성에 숨어 살았다. 사설 경찰과 똑똑한 변호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다. 미국 성조기의 의미가 이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불안감이 팽배했고 모두들 예상했던 변화는 이미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점점 견디기 힘든 날씨가 지속되고 있었고 아무도 이 변화들을 막을 수 없었다. 북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더 이상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살기 위해 남쪽으로 몰려들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변화가 지속되길 바랐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재난이 반드시 계속 되어야만 했다. 로스쿨 시절 도니가 들었던 첫 수업의 이름은 '자산'이었다. 그 수업은 자연 상태에 있는 사물이나 재화를 어떻게 살인이나 포획을 통해 한 개인의 자산으로 만드는지를 가르쳤다. '포획의 규칙'은 간단했다. 여우 사냥을 예로 들어보자. 누가 먼저 여우를 쫓아다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든 먼저 그 여우에게 해를 입히거나 여우를 그물망에 넣어 포획한 사람이 여우

의 임자가 된다. 지금 같은 문명사회에서도 이 규칙은 물이든 가스든 석유든 모든 재화를 손에 넣는데 적용되었다. 미심쩍은 선거 후, 권력을 장악한 지배 세력은 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강력히 탄압하기 시작했다. 현 대통령은 권력을 지키는데 급급했다. 심지어 텍사스 해안에 홍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대통령은 그 위기를 틈타 계엄령까지 선포한다. 누가 봐도 이 땅에서 정의는 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법정이라는 사법 기관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제 법은 오직 권력을 위해서만 작용했다. 정부에 맞서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추방당하거나 법정에 세워졌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도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다. 도니 역시 어느 사람들처럼 결정도 많고 때론 무모하기까지 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정의를 믿었다. 가장 최근에 도니가 맡은 고객은 젊은 영화제작자인 '셀리나 로카푸에르테'였다. 그녀는 야당 지도자의 살인을 목격한 바 있으며 현재는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미 정부가 처단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한 재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당연히 쉽지 않았다. 셀리나를 구제하려면 법조인인 도니 역시 법을 어겨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로서의 규칙을 어기고 자신의 운명까지 담보로 삼는 것을 의미했다. 무고한 젊은 여성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수용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간은 겨우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도니가 셀리나를 위한 재판에서 승소하는 방법은 오직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한 야당 지도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추적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권력까지 닿아 있는 어두운 음모까지로 이어진다. 도니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게 된다. 그러나 최고 비밀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셀리나의 친구들은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을 가지고 나타난다. 예기치 못하게 또 다른 사건이 셀리나의 사건과 맞물리면서 도니는 훨씬 더 충격적인 비밀 앞에서 갈등하게 된다. 비밀을 알게 된 도니는 한 개인일 뿐인 자신의 의뢰인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나라 전체의 미래를 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법의 질서에 따라야 할까, 아니면 미래 그 자체를 택해야 할까? 브라운이 그리고 있는 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더 섬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소설 속 세계와 현실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 체계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바람에 무죄인 사람도 유죄 선고를 받게 되는 이 세상이 과연 허무맹랑한 이야기의 소재에 불과 할까? 무시무시한 허리케인과 홍수, 쓰나미는 이미 우리도 뉴스를 통해 매일 같이 보고 듣는 이야기가 아닌가? 도니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독자들은 소설 속 암울한 미래를 보며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토퍼 브라운 (Christopher Brown)은 첫 번째 소설 『Tropic of Kansas』로 2018년 존 W. 캠벨 메모리얼 어워드에서 올해의 최고 공상 과학 소설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주로 기술, 정치, 경제 및 생태학에 관한 주제로 소설을 쓰고 있다.

제목 : THE WORST BEST MAN

가제 : 더 워스트 베스트 맨, 최악의 신랑 들러리

저자 : Mia Sosa

출판사: Avon

발행일: 2020년 3월 19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로맨스



***내 인생을 이미 한 번 망쳤던 남자,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내 앞에 나타난 남자,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남자와 내가 과연 사랑이란 걸 할 수 있을까?**

카롤리나 산토스, 줄여서 리나. 리나는 새 직장에서 자신의 결혼식을 망친 남자와 매일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는 바로 전 약혼자 앤드류의 짜증나도록 잘 생긴 남동생 맥스다. 3년전이었다. 전날 파티에서 광란의 밤을 보낸 맥스는 계속 울려 대는 핸드폰 벨소리에 잠에서 깬다. 형에게 온 메시지였다. 형 앤드류는 어젯밤 동생인 맥스 덕분에 깨달은 바가 있다며 바로 코 앞에 둔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맥스의 다급한 연락에도 형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결혼식 당일 앤드류는 동생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의 뒷감당을 맡겨 놓고 도망쳐버렸다. 맥스는 막상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 말들이 형에게 대체 무슨 영향을 준 건지 의아해한다. 맥스는 리나에게 그 엄청난 뉴스를 직접 전한다. 리나는 앤드류가 자신의 인생의 '단 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지난 이년 동안 그는 늘 즐거운 대화상대였고 만족스러운 섹스 상대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둘 사이에는 늘 안정감이 있었다. 앤드류는 결코 리나의 성질을 돋우는 법이 없었고 덕분에 둘은 단 한번도 크게 싸워 본적도 없었다. 둘의 관계가 완벽한 상호이익 결합이라고 믿었다. 결혼식 날 아침까지만 해도 리나는 앤드류와 자신이 이제 곧 같은 페이지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른 책, 다른 페이지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리나는 도통 앤드류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 와중에 맥스는 멍청한 것인지 지나치게 솔직한 것인지 형이 어젯밤 자신이 술에 취해 내 뱉었던 바보 같은 몇 마디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리나에게 털어 놓는다. 리나는 비로소 차츰 분노를 느낀다. 결혼 하루 전 날 둘이 술을 마시며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들을 나눈 걸까? 앤드류가 동생 덕분에 알게 되었다는 그 진실이 과연 무엇일까? 앤드류 같은 완벽한 남자가 어떻게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비겁하게 사라져버린 것일까? 정말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현재의 리나는 과거에 그녀가 저질렀던 부끄러운 실수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웨딩 코디네이터로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있었다. 그녀의 고객 중 한 영향력 있는 손님인 레베카는 그녀의 서비스와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는 그녀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다. 리나는 첫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과감한 시도를 했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리나는 브라질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남편이 가족을 떠난 후 리나의 엄마는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 주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만했다. 리나의 엄마와 이모의 헌신 덕분에 리나는 마침내 결점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성공을 겨우 거둘 수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실패할 기회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레베카의 제안은 리나에게 큰 부담이기도 했다. 리나는 고민 끝에 레베카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지만 상상도 못했던 걸림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3년전 자신의 결혼을 망친, 신랑의 들러리이자 그의 동생 맥스 하틀리! 한편 마케팅 전문가인 맥스는 형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에 지쳐버렸다. 형 앤드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사업상 둘이 같이 낸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사실 맥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두 형제의 엄마 눈에는 언제나 나이가 더 많은 형이 더 듬직해보였다. 덕분에 형은 맥스가 뭘 해내든 상관없이 늘 맥스 보다 한 발 더 앞서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호텔 고객인 레베카가 브랜드 확장 일로 고민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회사의 수장인 엄마의 지시에 따라 맥스는 형과 함께 레베카를 만나게 된다. 맥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 형보다 자신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 한다. 레베카의 주선으로 이렇게 세 사람은 그 최악의 날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마음에 설레었던 리나에게 이 모습은 스스로 상상했던 장면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 사람들과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확신조차 없었다. 당황한 건 맥스 쪽도 마찬가지였다. 리나는 엄청나게 똑똑한데다가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형의 전 약혼자였고 자신을 미치도록 증오하는 사람이다. 맥스는 그런 속마음은 끔찍 감추고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연기하는 중이었다. 반면 형인 앤드류는 한심하게 굴고 있었다. 입을 열 때마다 버벅거리며 탁자 밑으로 다리까지 떨고 있는 형과는 달리 리나는 초연하게 자기가 철저히 준비해 온 사업 아이템들에 대해 차분히 말하고 있었다. 맥스는 그런 리나의 단호한 태도와 뛰어난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결국 리나와 맥스는 전 약혼자 앤드류를 제외하고 레베카를 감동시켜야 할 파트너가 된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들이 서로를 죽이지 않고 살아남아 공동 프레젠테이션까지 무사히 마친다면 둘의 인생은 평탄하게 흘러 갈 예정이었다. 리나가 형을 부추겨 신부인 자신을 차버리게 맥스에게 복수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빼고 말이다. 그러나 인간사가 다 그렇듯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차질은 생길 수 있는 법이다. 리나와 맥스는 둘 사이에 불꽃 튀는 감정이 오직 적대감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닫는다. 리나는 사랑에 빠지는 일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고 맥스는 형의 약혼자였던 리나와 엮여 또 형의 뒤를 잇는 2등 주자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았다. 과연 이들의 톰과 제리 같은 로맨스는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 저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글쓰기로 읽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읽는 순수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저자 소개>

미아 소사 (Mia Sosa) 현대 로맨스소설 부문 어워드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주로 쓰고 있다.

제목 : SUMMER LONGING

가제 : 여름을 기다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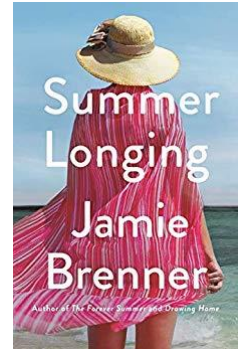
저자 : Jamie Brenner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20년 5월 5일

분량 : 384 pages

장르 : 일반 소설



★”한 가족의 비밀과 강인한 여성의 매력적인 이야기” – 「피플 매거진」

★”슬픔과 치유, 용서의 힘과 가족의 끈끈한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 – 『Small Admissions』
의 작가 에이미 포펠

루스 쿠퍼만은 여름을 사랑하는 여자였다. 하지만 지난 삼십 년간 단 한번도 마음 편히 여름 휴가를 즐겨 본적이 없었다. 가끔 여행을 가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영원하지 않을 짧은 여행이 과연 휴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접어버렸었다. 하지만 루스는 최근에 자신의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심했다. 앞으로는 마감일도, 회의도 영영 그녀의 인생에선 없을 일이 될 것이었다. 루스는 은퇴를 앞두고 아름다운 해변가가 펼쳐져 있는 프로빈스 타운에 찾아간다. 그녀는 평화롭게 여생을 보낼 진짜 ‘마지막 집’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루스는 마음에 쏙 드는 꿈의 집을 찾는 동안 해안가에 있는 아담한 집 ‘셸 헤이븐’을 빌려 살기로 한다. 루스는 그 동안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제는 정말 온전히 홀로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름을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서야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루스의 삶에 불청객이 찾아 든다. 집 앞에 누군가 아이를 두고 간 것이다. 이 일로 루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촘촘히 얽혀 있는 마을 공동체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루스는 곧장 셸 헤이븐의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집으로 와달라고 청한다. 아기를 돌보게 된 건 삼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병원 담요에 싸여있는 아기는 태어난 지 고작 이주 정도 밖에 안되어 보였고 품에 안아보기조차 불안할 만큼 너무나 작았다. 아기를 두고 간 사람은 기저귀 가방이나 분유 같은 것들도 함께 아기와 현관에 남겨두었다. 루스는 어서 집주인 페언이 집에 오기만을 바랐다. 마침내 그녀의 집으로 달려온 사람은 페언이 아닌 그의 아내 앨리스였다. 루스는 아마도 이 집을 자신이 빌린 것을 모르는 앨리스 부부의 친구가 아기를 여기에 두고 간 것은 아닌지 앨리스에게 묻는다. 그러나 앨리스는 마치 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혼자 얼이 빠져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루스는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아기를 달래며 자신도 이 아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한다. 평화로운 독립을 원했던 루스에게 이 아기의 존재는 불청객이었고 루스는 앨리스에게 이 난처한 상황을 말하기로 한다. 앨리스는 루스에게 이 일을 우선 비밀로 하자고 한다. 루스가 잠시 밖에 나간 사이 아기와 단둘이 남은 앨리스는 아기에게 폭 빠져 시간이 멈추기만을 바랐다. 앨리스와 페언은 레즈비언 부부였다. 페언은 자

메이카인이었고 엘리스는 부모님에게 여자인 페언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은 알렸지만 페언의 인종에 대해서 까지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크고 작은 외부적인 갈등은 많았지만 두 부부 사이는 늘 평화로웠고 찻집을 열면서 돌이 꾸려 가는 삶도 어느 정도 안정기가 찾아온 것 같았다. 사실 그건 엘리스가 아기를 갖고자 하는 미련을 버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엘리스가 난자를 얻기 위해 호르몬 치료를 받는 동안 부부 관계는 늘 뒷전이었다. 페언은 그런 엘리스를 이해해주었다. 하지만 엘리스의 임신이 실패하자 둘은 더 자주 부딪히게 되었다. 그랬던 그녀에게 이 아기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사실 루스가 좀 전에 전화로 누군가 집 앞에 아기를 두고 갔다고 했을 때 엘리스 에겐 그 말이 마치 마법의 문장처럼 들렸다. 엘리스는 아기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운명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아내 페언은 아기를 경찰서에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스는 아기를 데리고 경찰에게 가는 대신 아멜리아에게 간다. 아멜리아는 이 아기는 프로빈스 타운의 아기이니 자신들이 함께 돌봐야 하고 페언 역시 엘리스를 사랑하고 있으니 걱정말라며 엘리스를 안심시킨다.

관습에 대해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빈스 타운의 전통이었다. 이 마을은 어렸을 때부터 뿌리내리고 살아온 토박이들만 토박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정착민들도 정신적으로만큼은 토박이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과거는 모두 저 뒤에 내버려두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루스는 이 마을 특유의 공동체적 정신을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살고 있는 집에 엘리스가 아기를 돌보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 수 없었다. 반면에 엘리스는 ‘기적’이라는 뜻을 가진 ‘미라(Mira)’라는 이름까지 아기에게 지어준다. 페언은 갑자기 부모들이 아기를 찾으러 오거나 혹은 아기를 법적으로 입양하고자 했을 때 레즈비언 부부인 자신들이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페언은 그래서 아기에게 자꾸만 정을 주는 엘리스의 태도가 탐탁지 않았다. 한편 점차 루스는 딸 올리비아를 키울 땐 일에 쫓기느라 느끼지 못했던 묘한 감정들을 이 낯선 아기를 돌보며 경험하게 된다. 낯선 아기의 등장은 루스 마음 속 깊이 억눌려 있던 모성애를 일깨웠고 동시에 딸 올리비아에 대한 죄책감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올리비아는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루스는 열정을 다해 사업적 성공을 이루었듯 뭔가 열심히 하면 딸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딸을 마을로 부른다.

루스는 마을에서 만난 새로운 이웃들 덕분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녀의 미래는 고독의 즐거움보다는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여정이 될 것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루스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루스는 마침내 진정한 집을 만나게 될까? 모성과 우정, 여성들의 강한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돋보이는 잔잔하고 따뜻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이미 브레너(Jamie Brenner)는 베스트셀러 『The Forever Summer』의 작가로 가족들과 뉴욕에서 살고있다.

제목 : KILLER INSTINCT

가제 : 킬러 본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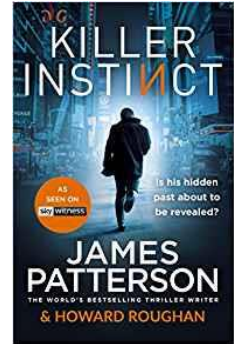
저자 : James Patterson

출판사: Century

발행일: 2019년 9월 10일

분량 : 400페이지

장르 : 스릴러



***제임스 패터슨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릴러 작가라는 사실은 전혀 미스터리 하지 않다. - 베스트 셀러 작가 제프리 데버**

미국 911 참사 이후, 사상 최악의 테러가 도시를 위협한다. 이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 중 한 명의 죽음은 딜런의 인생을 흔드는 과거의 망령으로 다가온다. 비밀스러운 그의 과거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일까? 이 사건으로 딜런 라인하르트 박사는 학계를 떠나 뉴욕의 거리로 돌아와 옛 동료 엘리자베스 니드햄 수사관과 재회한다. 한 편 한 아비리그 대학 교수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원자력 학술 토론회 때문에 맨하탄의 호텔 스위트룸에 묵게 된 MIT교수 자한 다비시는 대학의 후한 후원 덕분에 자유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그 사치스러운 방에 홀로 있지 않았다. ‘사디라’라는 흑발을 가진 아름답고 지적인 이란 여성과 함께였다. 매혹적인 사디라는 과제중예다가 머리까지 벗겨진 다비시의 외모 따윈 신경 쓰지 않았다. 둘은 예술적 취향도 비슷한데다 지구 온난화부터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무궁무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였다. 게다가 둘은 이란인이라는 공통점까지 있었다. 사디라의 아름다움과 지성에 온 마음을 뺐긴 다비시는 아무 의심 없이 그녀가 주는 술에 계속 취해만 갔다. 그 달콤한 술 기운도 잠시,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간다. 사디라가 그의 술에 탄 비아그라 성분 및 다른 약 성분들 때문이었다. 사디라는 서둘러 방에 남아 있어서는 안될 흔적들을 치웠다. 그리고 교수가 마치 쾌락을 좇다 사고로 죽은 것처럼 시신을 위장한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딜런 라인하르트 교수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끔찍한 폭발 테러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고 충격에 휩싸여 가족이 있는 뉴욕으로 향한다. 그날 아침 자신의 동성 남편 트레이시가 애나벨을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있는 디즈니 샵에 간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런던에서 보냈던 날들, CIA에서 일했던 지난 몇 년,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테러에 맞섰지만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테러는 그들의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다. 테러는 그들이 믿는 이념의 뿌리 그 자체였다. 그들은 죽음과 파괴를 원했다. 한편 사건의 현장에는 딜런의 전 동료이자 수사관인 엘리자베스가 말 그대로 천에 썩워진 채로 바닥에 놓여 있는 시신을 피해 걷고 있었다. 그녀는 공중에 띄운 드론을 이용해 사건 발생지에 위험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 중이었다. 모두가 사건이 정리되었다고 믿었던 그 때, 엘리자베스는 손상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던 폭발물을 발견한다. 그 순

간 폭탄이 터져버렸고 엘리자베스의 빠른 대처 덕분에 그녀는 동료의 목숨을 구한다. 두 번째 폭발 후 더 불안해하고 있던 딜런 앞에 남편 트레이시와 임양한 딸 트레이시가 무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몸을 던져 동료를 구한 엘리자베스는 하루 아침에 이 힘든 시기를 빛낼 영웅이 된다. 어떤 프리랜서 카메라 기자가 동료를 구하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포착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자신의 아파트로 기자들이 몰려들자 엘리자베스는 라인하르트의 집에 찾아온다. 테러전담반에서 일하게 된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맡은 첫 사건에 대해 딜런에게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MIT 교수이자 핵 물리학자인 다비시에 관한 이야기였다. 표면상으로는 자위의 쾌락에 빠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당국에선 죽은 교수가 이란인이라는 것과 핵과 연관된 사람인 것으로 보아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었다. 게다가 호텔 감시카메라에는 교수가 묘령의 여인과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딜런의 집으로 ‘벤자민’이라는 변호사가 찾아온다. 아랍계 혈통에,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이 신사는 딜런의 동료이자 가까운 친구인 알 하마다가 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알 하마다는 딜런의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딜런은 과거의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다시 그의 곁으로 다가올지 상상도 못했었다. 알 하마다의 변호사는 딜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넨다. 변호사로서 벤자민의 임무는 매일 알 하마다의 생존 여부를 체크하는 것과 만약 그가 죽을 경우 이 봉투를 딜런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딜런은 곧 이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그러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다비시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된다. 뉴욕 시장은 엘리자베스의 인기와 그녀가 누리고 있는 영웅적 이미지를 이용하고 싶어했다. 그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다비시 사건 대신 얼마 전에 일어난 타임스퀘어 테러 사건을 맡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한 것이 하나 있었다. 자신이 목숨을 구한 상사는 분명 CCTV 동영상 속 여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하얀 빛에 대해 분명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엘리자베스는 영웅이 되고 싶진 않았다. 이 도시에 영웅적 존재가 필요하다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있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명성 때문에 무자비한 테러집단의 주요 타깃이 된다.

딜런은 문자 그대로 살인의 심리학에 대한 책을 쓴 범죄 심리 전문가였고 엘리자베스는 뛰어난 해결력을 가진 수사관이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에게 닥친 사건은 교과서만 잘 보면 풀 수 있는 시험문제 같은 것이 아니었다. 알 하마다가 딜런에게 남긴 봉투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교수의 죽음과 테러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엘리자베스와 딜런에게 이제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깔끔한 문장과 빠른 사건 전개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스릴러물이다.

<저자 소개>

제임스 패터슨 (James Patterson)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 The Alex Cross 』와 『 Women's Murder Club 』 등이 있다.

NON-FICTION

제목 : FROM WHAT IS TO WHAT IF

가제 : 세상을 구원할 상상력

저자 : Rob Hopkins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10월 17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사회, 경제



***“이 책은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기 위한 강력한 부름이다. “-파리 기후 협정 수석 협상가,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이 책의 저자 롭 홉킨스는 국제 트랜지션 타운 무브먼트 (Transition Towns movement)의 창립자이다. 이 운동의 목표는 기후 변화 및 경제 위기가 같은 위험에 대비해 활발한 풀 뿌리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저자는 어느 때보다 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방식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왜 이러한 사고 방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홉킨스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가 다시 발전적인 사고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깊은 분열과 절망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미래는 너무나 끔찍할 것이다. 외로움과 불안은 마치 유행병처럼 세계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중 다수는 정신 건강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극단주의 운동 세력들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고 극우주의 정부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의 실생활을 위협할 만큼 우리에게 바짝 다가와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다. 게다가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생태계 파괴 현상은 아무래도 이제 손을 쓸 수 있는 때를 지나선 것 같다. 세상의 변화를 꿈꾸고 원하는 사람들조차 반복된 실패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무력함을 느끼다 못해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이 같은 현실을 보고도 침묵하려는 사람들에게 과연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아직 절망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독창성과 상상력, 유대를 통해 발전해왔다. 홉킨스는 순진하게 뜬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영국 토트네스와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우리의 상황과 문화는 얼마든지 빠르게, 극적으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모든 아이디어의 근원은 '~라면 어떨까 (What if~?)'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만약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변화를 정부나 사업을 통해서가 아닌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가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문제에 대한 답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생존하기 위해 택하는 고립, 무자비한 상업주의 혹은 구세주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다시 결합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아마 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우리가 개인으로서만 행동한다면 그 혜택은 너무나 적은 사람들에게만 돌아 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 함께 충분한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자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사이에는 '전환(Transition)'이라는 용어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전환이란 고자원 사용, 이산화탄소 (CO2) 배출, 추출 사업 관행, 분열된 지역 사회에서 더 건강한 문화, 더 유연하고 다양한 지역 경제, 더 많은 연결과 더 적은 외로움, 더 많은 생물의 다양성과 더 많은 여가시간, 더 성숙한 민주주의와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 놀라운 발상의 전환은 실제로 토트네스 마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토트네스 마을 공동체 스스로가 주택 개발 업체, 에너지 회사, 기업 인큐베이터 및 지역 식품 네트워크 역할을 도맡았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지역 사회에 가져다주었다. 이 사례가 증명하듯 우리에게서는 분명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홉킨스는 상상력의 상실이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사회 개혁가 존 듀이 (John Dewey)가 정의한 바와 같이, 상상력은 사물을 다르게 볼 줄 아는 능력이다. 즉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되물을 수 있는 능력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서 이런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 책에서 들려오는 친절, 낙관, 밝기, 유머 및 상상력으로 가득 찬 목소리는 서로 다른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목차>

머리말.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진다면?

1. 놀이를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면?
 2. 상상력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건강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3. 자연의 질서에 따라본다면?
 4.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운다면?
우리의 관심은?
 5.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준다면?
 6. 우리가 더 나은 이야기꾼이 된다면?
 7. 더 나은 질문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 (총 9장으로 구성,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롭 홉킨스 (Rob Hopkins)는 Transition Town Totnes 및 Transition Network의 공동 창립자이다. 2012 년에 그는 인디던트 선정 100 대 환경 운동가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제목 : LEADERSHIP IN WAR: LESSON FROM THOSE WHO MADE HISTORY

가제 : 전쟁 속 리더십: 역사를 만든 이들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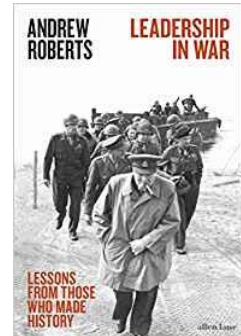
저자 : Andrew Roberts

출판사: Allen Lane

발행일: 2019년 10월 2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역사



***뉴욕역사협회 (New York Historical Society)에서 열렸던 아홉 명의 리더들에 대한 강연을 알찬 책 한 권으로 만들었다.**

앤드류 로버츠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해 냉전시대까지 다양한 지도자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호레이쇼 넬슨, 윈스턴 처칠, 아돌프 히틀러, 조셉 스탈린, 조지 C. 마셜, 샤를 드골, 드와이트 D. 아이젠 하워, 마가렛 대처, 이들은 현대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다. 이 아홉 명의 공통점은 바로 세계 최대의 전쟁을 거쳐 한 국가를 이끈 지도자라는 점이다. 동시에 이들은 저마다 독특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매우 객관적인 관점과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가지고, 이 아홉 명의 리더십을 분석한다. 이 지도자들은 모두 각자 조국이 참여했던 전쟁의 결과와 깊이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지도자들이 전쟁 중 보여주었던 리더십에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어떤 갈등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술도 돋보였지만 동시에 각자만의 특징적인 점도 있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백 명을 이끌 수 있을까? 사실상 지도자 한 명이 이끌어야 하는 대상은 단 백 명이 아닌 수십만 또는 백만 명의 사람들이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10억에 달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리더십의 기술이란 한 명의 지도자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대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왜 좋거나 나쁘게 나타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 책은 전쟁 중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이 최선이었고 혹은 최악인이었는지 살펴보는 강의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시험해보기 가장 적합한 무대가 전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듯이 모든 리더가 선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 책에서 다룬 아돌프 히틀러와 요셉 스탈린에 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리더십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완벽히 중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도자들은 우리를 어두운 심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고지대로 데려갈 수도 있다. 이 아홉 명의 지도자는 공통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는 그들의 전쟁에서 꼭 필요한 훌륭한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 그는 가정에서부터 가족 계보를 통해 자신이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한 집단을 통치할 수 있는 자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교육받았다.

나폴레옹과 같은 다른 인물들은 이미 청소년기와 성인이 된 시기 초부터 자신들이 가진 놀라운 지성과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마가렛 대처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남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히틀러는 1920년대 초반 자신이 외치는 분노와 증오의 말이 바바리아 비어 홀에 몰려든 실직 한 전직 군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경험하게 된다. 히틀러는 그 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히 성장시키게 된다. 어떤 걸림돌도 이러한 지도자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은 오히려 이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들에게 실패란 끝이 아닌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또한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는 언제나 달성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있어 과제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스탈린의 과제는 세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전파하는 것이었고 넬슨은 프랑스 혁명의 원칙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히틀러는 다른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아리아 민족의 승리를 이끌어 내려 했다. 윈스턴 처칠은 대영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샤를 드골은 1940년 대재앙 이후 프랑스 영예를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마가렛 대처는 영국의 돌이킬 수 없는 쇠퇴를 막고자 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서부 유럽의 해방을 꿈꿨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살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뛰어난 리더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넬슨, 처칠, 대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처칠은 나폴레옹의 지도력에서 많은 영감을 얻기도 했다. 스탈린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머지 인물들은 어렸을 때 역사서 전기를 탐독하며 자신도 언젠가 그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아홉 명의 지도자들의 성공과 과오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무한한 영감을 주는 동시에 무엇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로버츠는 철두철미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들을 통해 이 투쟁과 불화의 시기에 꼭 필요한 지도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목차>

머리말: 리더십의 수수께끼

1장.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2장. 호레이쇼 넬슨

3장. 윈스턴 처칠

4장. 아돌프 히틀러

5장. 요셉 스탈린

(이하 생략, 총 9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앤드류 로버츠 (Andrew Roberts)는 영국의 역사가이자 기자이며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전쟁 연구 학부의 방문 교수이기도 하다.

제목: MILLION DOLLAR MATHS: The Secret Maths of Becoming Rich (or Poor)

가제: 백만 달러 수학: 부자 혹은 가난뱅이가 되는 수학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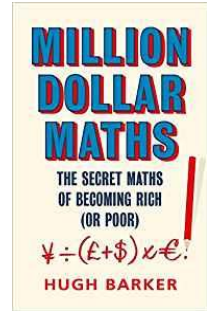
저자: Hugh Barker

출판사: Atlantic Books

발행일: 2018년 11월 1일

분량: 320 페이지

장르: 경제, 실용서



***"수학과 돈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명쾌하고 독창적인 책." 『Significant Figures』의 저자 이안 스튜어트 교수**

좋은 삶은 모두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 돈으로 사랑이나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편안함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쉽고 똑똑하게 벌 수 있을지 당연히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수학을 잘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책의 저자 휴 베이커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 역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수학을 잘 하는 사람들은 사업도 더 잘 하고 재무관리도 잘 하겠지?’, ‘수학은 또 어디에서 유용하게 쓰일까?’ 이 책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저자의 대답이다.

교실을 벗어난 수학은 우리가 생각 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먼저 수학이 유용하게 쓰이는 분야를 크게 도박, 투자, 개인 자산 관리로 나누었다. 이 책에는 수학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유명 투자자, 사업가는 물론 도박꾼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저자는 이 세 분야에서 뿐 아니라 수학 없이는 이제 현대 기술 자체가 아예 성립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매체이고 최근에 세상을 한바탕 뒤집어 놓았던 비트코인 역시 복잡한 수학 공식 속에서 탄생했다. 게다가 지속적인 해커 전쟁 때문에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수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수학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살펴본다.

저자는 먼저 돈 이야기로 돌아가, 돈은 가치를 매기는 수단이며 돈의 가치는 항상 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찔끔찔끔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집 마당에 돈이 열리는 나무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래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법을 떠나 단순히 생각해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불리는 것 역시 도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도박이 돈을 굴리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도박을 통해 운과 확률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익히고 자산 관리 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논리적 오류들에 대한 예시를 몸소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도박을 이용하면 간단한 수학을 이용해

사업적 위험성과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법을 확실히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 주식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선 다양한 자산의 작동 방식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하고 수학적 분석능력을 활용해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는 작전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주식 시장 분석가들이 만든 도표 따위에 목매 필요 없이 스스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어쭙잡은 예측만 하고 있을 때 당신은 숫자와 데이터만으로 그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수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레 겁부터 먹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활용되는 수학은 그리 거창한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로 성공한 투자자와 사업가들이 활용한 수학적 전략은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수학 덕분에 불필요한 실수를 피할 수 있었고 숫자의 작동방식을 파악해 데이터 및 확률을 분석하기 위해 수학을 이용했다. 저자는 수학적 사고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엄격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수학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수학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도 전문가 못지않게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략은 우리의 생활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목차 소개>

머리말 : 수학과 돈의 흥미로운 관계

제 1장. 기하급수적 성장의 원동력

제 2장. 도박에서 이기기

제 3장. 도박 시스템과 전략

제 4장. 성공한 투자가

제 5장. 시스템 해킹

제 6장. 제 2의 구글

제 7장. 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수학

(총 8장으로 구성,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휴 바커 (Hugh Barker)는 논픽션 작가이자 편집자이다. 저자는 열두 살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한 바 있는 아마추어 수학자이기도 하다

제목 : BREAKING AND MENDING

가제: 나는 마음이 아픈 의사입니다

저자: Joanna Cannon

출판사: Wellcome Collection

발행일: 2019년 9월 19일

분량: 176페이지

장르: 에세이



*** 영국에서만 25만부가 판매되고, 15개국에 판권이 계약된 베스트 셀러 소설 <The Trouble with Goats and Sheep>의 작가 Joanna Cannon이 들려주는 감동 에세이**

*** The Times가 선정한 최고의 의료 에세이**

이 책의 저자 캐논은 수련의 시절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한 환자의 죽음을 목격한다. 캐논은 의사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마저 잊고 슬픔에 사로잡힌다. 그 후,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쳐가던 그녀는 자신이 이 직업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동료의사들이 실패한 자신을 보며 기뻐할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다. 캐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했다. 캐논은 어둠에 갇혀 지쳐가는 동안 다른 선택지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조안나 캐논은 응급실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살면서 한번도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 캐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무너진 상태였다. 산산이 부서진 몸과 마음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잘 자지도 못했다. 심지어 몇 달 동안이나 그녀의 표정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종이처럼 얇은 커튼이 쳐진 좁은 방에 혼자 누워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인생의 바닥으로 곧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 모든 걸 놓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 조안나 캐논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전 정신과 의사로 병원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이 감동적인 회고록에서 캐논은 의사로 일했던 시절 그녀가 겪었던 가슴을 뭉클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병문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게 된다. 수술복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담담한 자신감을 가지고 병원 복도를 오가는 그 사람들을 말이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은 당연히 무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질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그 질병을 피해갈 확률이 높긴 하다. 우리 한번도 협심증이 있는 심장 전문의를 만나본 적이 없다.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믿음이다. 그저 모든 의사들은 우리를 구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는 게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의사가 자기 자신의 목숨도 살려내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겠는가? 하지만 아쉽게도 청진기는 만능 부적이 아니다. 여기저기에 위험한 요소가 널려있는데다 의사라는 직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따른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보았던 영화나

TV속 의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침착하고 냉정하며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로 그려졌다. 의대에서 5년 동안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를 치료는 법을 배운다. 5년 내내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면서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무슨 답변을 채워야 할지 고군분투한다. 그러다 학교를 떠나 실제 병동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곧 알게 된다. 이론과는 달리 의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이다. 교과서를 벗어나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있는 실제 현장, 현실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환자를 잘 고치는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수련의 시절 캐논이 경험한 좌절감과 훗날 동료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의사로서의 캐논의 인생을 바꿔 놓는다. 심장 마비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의과대학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는 반드시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캐논 역시 그 거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결 되고 싶어한다. 캐논은 과감히 그 공간을 뛰어넘었다. 캐논은 사소하지만 따뜻한 순간들과 친절 한 행동 하나하나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환자의 심장 박동을 정상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만큼이나 정서적 치료와 정신 건강은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 요소였다. 의사와 환자에 대해 다룬 이 생생한 이야기는 우리가 왜 서로에게 늘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지 알게 해줄 것이다.

<목차>

- 1장. 부수기
 - 2장. 이야기들
 - 3장. 만능 패
 - 4장. 심장
 - 5장. 몸
 - 6장. 선택
 - 7장. 거울
 - 8장. 단어들
 - 9장. 잘못된 친절
- (이하 생략, 총 2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조안나 (Joanna Cannon)은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 정신과 전문의로 병원 의사로 일한 바 있다. 저자의 첫 소설 『The Trouble With Goats and Sheep』은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들었다.

제목 : CYNICS, FOOLS, AND LONELY PIONEERS

가제 : 냉소적이고 바보 같은 외로운 개척자들

저자 : Warren Valdmantis, Michael O'Leary

출판사: Harper Business

발행일: 2020년 8월 15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경제



*** 이미 시한부에 접어 든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정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

이 책은 자본주의를 현 자본주의로부터 구해내자고 외치는 선언문이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위험 없이 번영을 창출하는 경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청사진을 제공한다.

흔히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가치는 그저 뒤로 제쳐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자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버린다. 하나는 도덕적인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자아이다. 아무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상은 유명무실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제, 주식매각, 임팩트 투자와 같은 흐름에 그저 몸을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삶의 의미와 존엄성을 스스로 빼앗았고 경제와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망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자본주의에 대한 암울한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의 진단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 사람이 아닌 기업에 집중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텅 빈 용어에 대해 잘못된 믿음만 더 키워버리는 꼴이 되었다. 저자들은 자본주의 자체를 구하려면 기업의 핵심 사명을 보다 높은 수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소비자, 투자자, 고용인, 유권자로서 경제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이 파괴적인 경제적 환경과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나설 때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무너졌고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모순적이게도 순기능이 있는 만큼 많은 폐해 또한 가지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 5명 중 1명 미만이 자본가인 이 시대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려다 되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흔히 이들이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빈약한 약속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라는 허무맹랑한 개념이 자본주의의 죽음을 초래할지 모른다. 골드만 삭스는 여성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으로 10,000 명의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이사회는 성별 다양성 부분에서 포춘 지(Fortune) 선정 500대 기업 중 358위를 차지했다. 뉴욕의 공공 연금은 화석 연료를 구매하는데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 주식은 최악의 주식 (Sin Stocks: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주식)에 공급되는 월스트리트 헤지 펀드가

매입한다. 유엔은 82 조 달러를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따라 사용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수익 창출 여부만 따져본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분류된 모든 항목들에 대해 매출의 10 %도 쓰지 않는다.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미국 내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투자한 돈은 달러당 0.027 %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본주의를 구하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책임감 있는 자본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의 열망에 찬물을 뿌린다. 저자들은 개혁의 길에 서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 규제는 아무 소용없는 고양이와 쥐 게임에 빠져버렸고 오히려 정부 규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힘만 더 보태고 있다. 현재 대학 캠퍼스를 휩쓸고 있는 매각 투자는 가장 책임이 적은 주주들의 소유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책임 있는 자본주의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최근에 등장한 임팩트 투자는 시스템 변화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가 꼭 잡고 있는 바람에 제대로 된 기능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저자는 분명, 올바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기업에서 노예처럼 일만 하면서 자신이 역시 문제의 일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또한 자신이 모은 돈이 어떤 식으로 이 병든 시스템을 배불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연금수급자와 투자자들을 위한 책이다. 마찬가지로 옳은 일을 하고 싶긴 하지만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모든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책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원가 잘못 되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 좌절에 빠진 유권자를 위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적을 만났다.

미국 경제계의 분열과 절망 그리고 배당금

1장. 죽이기

금융회사는 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며, 식품 회사들은 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고 건강보험 회사들은 왜 우리를 치료해주지 않는 걸까?

2장. 눈속임과 이윤,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싸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가진 모순

3장. 우리에게서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무 소용없는 정부 개입

4장.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자본주의의 지휘자는 손을 놓고 있다.

<저자 소개>

워렌 발드마니스 (Warren Valdmanis)는 미국의 금융 회사인 베인(Bain)사에서 13 년간 근무 중이며 2017 년부터는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마이클 오레어리 (Michael O’Leary)는 베인 사에 2012 년에 베인 사에 합류했으며 텍사스에서 가장 큰 친환경 폐기물 업체 리빙 어스 (Living Earth)에서 전략 개발 담당을 맡은 바 있다.

제목: LOVE IS GREATER THAN PAIN

가제 : 고통을 이기는 사랑

저자 : Marilyn Kapp

출판사: Harmony

발행일: 2020년 6월 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자서전



***영혼과의 소통을 통해 떠난 자와 남은 자 모두 슬픔보다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책**

이 책의 저자 마릴린 캡은 정말 흔하지 않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재능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릴린은 이 기적 같은 재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진다. 여기서 그녀의 재능이란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의 소통 능력이다.

1958년 마릴린이 두 살 때였다, 마릴린의 할아버지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침대에서 일어나 면도를 하고 옷을 입었다. 그런 다음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을 했다. 웬일인지 할아버지는 다시 침대에 누웠고 마릴린은 그런 할아버지 곁에 서있었다. 그때였다. 할아버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떠오른 할아버지의 몸은 할아버지가 방금 떠나 온 몸과 똑 같은 모습이었다. 마릴린은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다. 할아버지는 어린 마릴린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가끔이긴 했지만 정말로 마릴린의 삶 속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다. 살아 생전 늘 계셨던 곳인 부엌에 앉아 마릴린을 향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와 예전처럼 손을 잡거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동화책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마릴린의 어머니나 마릴린이 자신에게 할말이 있다는 걸 언제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수년 동안, 마릴린은 자신에게 영혼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족은 물론이고 스스로에게조차 감추려 했다. 초등학교 시절 급우의 죽음을 정확히 예측했던 것도 숨겨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대학생이 된 마릴린이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엘리 위셀 (Elie Wiesel)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다. 마릴린은 위셀 덕분에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감추지 않기로 결심한다. 위셀은 마릴린의 멘토가 되어주었고 마릴린이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었다. 마릴린은 고객들과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사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그녀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성장과 행복이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쉽고 명확한 언어로 설명한다. 실제로 마릴린은 수많은 재혼 커플 결혼식에서 신랑 혹은 신부의 세상을 떠난 전 남편, 전 부인 등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마릴린은 또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과 소통하는 방법 또한 한 챕터에 실었다.

저자는 계속해서 죽음은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관계와 사랑을 끝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음의 문을 열어둔 채, 슬퍼하는 만큼 떠나간 이들의 삶을 기리면서 우리는 계속 사랑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비록 지금은 내 곁에 없지만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이전과 똑같이 위로할 수 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위로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고 싶어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하늘 나라로 간 아이들은 종종 부모들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달라는 말도 한다. 영혼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보주기를 원한다. 마릴린은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영혼들이 우리와 실시간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계속되는 삶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혼과 소통은 도저히 믿기 어려울 일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릴린은 우리 모두가 ‘성스러운 지각능력 (Divine Consciousness)’를 갖고 태어났으며 우리에게 이 능력이 가장 필요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건이 오히려 그러한 능력을 기억해내고 그 능력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도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육체와 영적인 두 현실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마릴린은 더 나아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거나 혹은 재발견하는 일은 영영 불가능할 것이라 말한다. 영혼과 소통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능력은 어쩌면 우리 의식 바깥에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목차>

제 1 장. 앨런과 우주의 비밀

제 2 장. 질문들, 물리학 그리고 오리너구리

제 3 장. 상실 이후, 당신의 진동이 더 강해지도록

제 4 장. 지나간 삶을 돌아보기— 고통의 이유에 대해 이해해보기

제 5 장. 함께 죄책감 덜어내기—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

제 6 장. 영적 교감의 열쇠는 지상에서의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것

제 7 장. 전환—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기

제 8 장. 협력: 사랑했던 사람의 메시지 해석하기

제 9 장. 연결이 우리와 사랑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가?

(이하 생략, 총 15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마릴린 캅 (Marilyn Kapp)은 에머슨 칼리지에서 예술 석사를 받았으며 기공 마스터이자 치료자인 조 웡 박사 (Cho Wong)박사의 제자였다. 저자는 개인 및 가족을 상대로 수천 건의 영적 소통을 수행했고 미국전역과 세계에서 직접 혹은 전화로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